

Sermon Notes:

서론: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: 성경 (딤후 3:15-17)

본론:

1.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신칭의를 증명하고자 함

가. 아브라함

‘믿음의 조상’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요 의인.

그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음->여전히 죄인

갈대아 우르 출신,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 출신

완벽한 사람 아님: 순종도 있었지만 불순종도 있음

성경 근거: 창 15:6 (여기신바->계산서에 넣음)

나. 다윗

아브라함과 필적할 만한 위대한 인물 (마 1:1)

그렇지만 그도 온전치 않음: 시 32:1-2 절을 인용

죄로 인해 괴로워하면서도 회개 않음->나단 선지자

‘사하심’ : 없앰, ‘가리움’ : 노출을 막음

2. 유대인들의 예상된 반대

가. 할례는 도움이 안 되는가? (v.10)

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불린 때: 할례받기 전 (창 17:24)

나. 율법은 도움이 안 되는가? (v.11-12)

율법은 400 여 년 후인 모세 때 주어짐-> 오직 믿음으로

3. 율법, 할례, 선행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음!

은혜(공짜)지만 결코 시시하지 않음-> 두렵고 떨림으로…

결론: 우리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십시오!

암송구절: 로마서 4 장 3 절

‘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’

Memo/Reflection:

- 만약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자신이 있는가?
-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?
-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우습게 여기지는 않는가?